

오순절 후 스무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0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8 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새 2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1 번 이사야 (Isaiah) 65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Romans) 12:9-18	김 현 집사
찬 양 Anthem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대
설 교 Sermon	“참된 환대를 실천하십시오” (Practice Radical Welcom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31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끝없는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았고,

우리의 시선은 악하고 허망한 것을 좇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짓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딤후 6:7-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한글개역 롬12:13)

“Share with God's people who are in need. Practice hospitality.”

(NIV Romans 12: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10 (주일)	10/11 (월)	10/12 (화)	10/13 (수)	10/14 (목)	10/15 (금)	10/16 (토)
왕상	왕상13	왕상14	왕상15	왕상16	왕상17	왕상18	왕상19
빌	빌4	골1	골2	골3	골4	살전1	살전2
겔	겔43	겔44	겔45	겔46	겔47	겔48	단1
시	시95,96	시97,98	시99-101	시102	시103	시104	시105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0/13 오후7:30)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삿3:7-11)
토요 새벽기도회 (10/16 오전6:30)	“네 짐을 여호와께” (시55:16-23)

지난 주일(10/3) 말씀

전도의 8 가지 습관 (2) – “성례전적인 삶을 실천하십시오”(고전 11:23-32)

개혁주의 신학(Reformed Theology)에서는 세례(Baptism)와 성찬(Communion)을 성례전(Sacraments)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례전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가장 일상적인 것들(물, 떡, 포도주)이 사용된다”(규례서 W-30401)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평범한 물과 떡과 포도주는 (마치)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아주) 특별한 도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례전적인 삶을 실천한다는 의미 역시 1)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이고(고전11:23-25), 2)또한, 우리가 성례전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고전11:26), 3)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고전11:27-29). 성례전과 관련하여, 예배 신학자인 제임스 화이트(James White)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Sacraments as God's Self-Giv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몸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 받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을 살피며 날마다 성례전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메/모